

세대간 대결 양상 뚜렷...가족들도 지지후보 달라 ‘혼전’



세종시 사전투표율 1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세종시 중촌동북학커뮤니티센터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세종시는 투표율 34.48%를 기록, 전국 1위에 올랐다. /대전일보=신호철기자



뜨거운 강릉 유세 현장 시민들이 지난 5일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한 대선후보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강원일보=권태명기자

수도권

나이·지역·직업별 지지 달라 정당·인물 놓고 고심 소신 투표 늘어날 듯

대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도권 유권자 상당수는 아직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다. 역대 대선과 달리 5자 후보로 구도가 짜이면서 ‘정당’과 ‘인물’을 놓고 고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자칫 자신이 던진 한 표가 ‘사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맘에 들지 않는 후보에게 마냥 투표할 수 없다는 ‘소신 투표’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표심 잡기가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체론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7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만난 한 50대의 택시기사는 “이대로 가면 문재인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도 “사람은 안철수가 더 좋은데...”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겉으로 문 후보의 대체를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안 후보를 더 의식하는 듯 보였다.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만큼 수도권 유권자들의 지지 후보와 성향은 거주 지역과 직업, 성별, 세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대체로 열성적이었다. 여의도에서 직장 다니는 김정숙(35)씨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안철수다. 근데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다”며 “토론회에서 대답도 잘 못하는 사람, 싸움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찍느냐”고 일갈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사이 보수층’의 결집도 형성되는 듯했다. 방배동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상우(54)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가 소신이 뚜렷하고 기업 규제를 잘 풀어 줄 것 같아 아들 데리고 나가 투표하고 왔다”고 말했다.

가족단위에선 세대별로 논쟁이 격렬하다고 한다.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김명식(55)씨는 “모처럼 식구들과 외식을 했는데 아내와 아들, 딸 모두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다”며 “대화를 할수록 언성이 더 높아져 화제를 돌렸다”고 했다. 여대생 정아원(24)씨는 “방송 토론보고 심상정 찍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말인 지난 6일 경기도 유세 현장에선 평소 정치 성향 등에 따라 지지후보가 제각각이었다. ‘대세’를 반영한 듯 문 후보 유세장에는 인파가 북새통을 이루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지난 겨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수도권 유권자들이 다수 참여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에게 사전투표했다는 추연집(46)씨는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서 유세를 벌인 홍 후보 쪽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많아 대조를 이뤘다.

반면 이날 경기도 유세에 나선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쪽엔 청중수는 적었지만 대체로 젊은 유권자들이 많았고, 방송 토론 이후 ‘소신 지지층’이 늘었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재영(58) 씨는 “정로운 선택을 하고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시민 김용주(58) 씨는 “인천은 보수층이 많은 접경지역과 야권 성향이 강한 신도시 지역이 혼재돼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정의중·이현준·강기정기자 jei@kyeongin.com

대전·충청

충청 연고 후보 없어 표심 아직 결정 못해 “투표장에 가 봐야 안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일 대전 중구 석교동의 한 초등학교 사전투표소는 이른 아침에도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이 많았다. 지역업자 이승호(45)씨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실망감이 많았던 만큼 주변 지인들도 투표하겠다는 열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 60대 남성은 “보수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 혼란이 덜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지난 정권에서 보여준 국정농단 사태로 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진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달 만에 다시 찾은 4일 세종시 금남면 대평전통시장의 분위기는 한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평시장 사람들은 한달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쪽으로 기울어 있었는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는 표심이 갈갈이 찢어지는 모습이었다.

“지금은 한 후보에게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혼란이 많을거” 박육균 대평시장 상인회장은 시장 상인들이 TV토론회를 보고 난 후 지지 후보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민(66·세종시 금남면)씨는 “보수 후보가 막말을 많이 해 싫어하지만 대체론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세종의 행복도시 표심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석민(39·세종시

새물동)씨는 “이름만 바꾼 보수정당이 석고대죄하고 쇄신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낡다 진보를 뽑지 말라니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 정명훈(62·충남 금산군)씨는 “옛날 같지 않다. 원래 묻지 마 1번이었는데 이제는 누굴 찍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잘 따져봐서 옳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영재(32·충남 계룡시)씨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안보위기가 심화되는데도 후보자들 모두 돈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안보관이 명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아산에서는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지지 후보가 극명히 나뉘었다. 박대영(37)씨는 “최소한 사대로 기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이는 곧 촛불집심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대선은 정권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권교체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58)씨는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생애 처음 투표한다는 김민수(20·청주시)씨는 “부패한 세력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시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언론매체와 집으로 배달된 선거 홍보물을 살펴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을 하는 박돈희(54·충주시)씨는 “최근 충북도가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중도포기를 선언하면서 충주지역 민심이 보수정당으로 돌아섰다”면서 “충주에서는 보수 후보 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상목(42)씨도 “제천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보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대전일보 은현탁·김진로·인상준·김대욱기자

강원

대도시는 문제인 접경지역은 혼선 보수층 결집 조짐도

그동안 역대선거에서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던 강원도 민심은 5·9대선을 이를 앞두고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지역별·세대간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강원 정치권에서 가장 지분이 큰 보수층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대선 표심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이 역력했다.

춘천은 강원도 정치권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도청소재지인데다 오랫동안 보수정당 후보가 시장·국회의원을 휩쓸었던 지역인만큼 보수진영에는 ‘꼭 지켜야 할 심장부’, 진보 진영 정당에는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전략지역’이다.

춘천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진태 국회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젊은층의 표심은 구 여권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대학생 이미영(22·춘천시 석사동)씨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춘천에서 왔다고 하면 친구들이 꺼내는 첫 마디가 ‘김진태 같은 사람 왜 뽑았냐’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홍준표 후보 쪽을 거냐고 한다. 이번에는 확실히 바른정당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진모(37·춘천시 동면)씨도 “주변 또래를 보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문재인 대체론”이 3040세대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보수층의 충성심도 여전했다. 택시기사 안만섭(55·춘천시 신북읍)씨는 “김진태 의원이 홍 후보를 열심히 돕고 있으니 홍 후보가 집권하면 큰 자리 하나 맡지 않겠다. 홍 후보가 맡은 거철어도 똑심있어

보이고 솔직해서 좋다”고 말했다. 신준수(77·춘천시 석사동)씨도 “미우나 고우나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도내 인구 최대 도시인 원주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경제도시이지만 도심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민심은 차이가 컸다. 최모(45·원주 반곡관설동)씨는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면 제1당의 후보인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이인선(여·51·원주 태장동)씨는 “문 후보보다는 홍 후보가 낫지 않나 싶다. 안철수 후보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했다.

가장 표심이 혼란스러운 지역은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다. 이 지역구는 유 초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간 황영철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물론 도의원, 군 의원이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정당 소속이다. 보수층이 두꺼운 지역인만큼 사실상 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간 경쟁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김모(37·철원군 동송읍)씨는 “조그만 동네이다 보니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그런데 상황을 보니 지방의원들도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하나의 줄기를 형성한 가운데 최근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다시 한국당 복귀를 결정하면서 보수층 사이에서도 선거여기가 되살아났다.

김모(66·속초)씨는 “보수층은 절대 문재인 안 찍는다. 안철수·유승민에게 간 표가 한데 모이면 홍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강원일보 원성영기자 haru@kwnews.co.kr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화정역 1호선에서 100m가량 직진 후,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나주혁신 빗가람 로데오 포장마차 사업주 모집 안내

◆사업지: 나주시 빗가람동 26번지 상업 6블럭 로데오 거리 일원
◆자격: 소자본으로 요식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모집업종
-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가공류: 닭고기/ 오리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해물류: 회, 생선구이, 조개구이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주류: 수제맥주, 와인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분식류: 제과,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동남아음식: 베트남, 일본, 중국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유망 프랜차이즈 업종 불가
◆점포수: 29점포
◆입대조건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매출에 따른 수수료 매장 or 월 고정 임대료 중 선택 가능
◆입점혜택
- 인테리어 비용 최소화
- 주 2회 거리공연 (기념일 대규모 행사)
- 이간 배달주문 콜센터 운영 (18:00~22:00)
- 지속적인 광고 홍보 / TV 및 라디오 광고 예정
- 사장님용 및과 서비스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상의 영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유흥의 중심”
빗가람동 상업6블럭 로데오거리의
“**빗가람 로데오 포차**”와 함께 할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오픈 예정일: **2017년 5월**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인점 문의: **061)333-9001**
나주시 배엣1길 26-1 ING타워 101호